

무기력한 호랑이... 승리에 배고픈 기아



KIA 양현종이 16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무실점 피칭을 선보인 뒤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해결사' 없는 KIA 타이거즈가 연장 승부 끝에 4연패에 빠졌다. KIA가 1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연장 10회 이정후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0-2패를 기록했다.

키움에 시즌 첫 스윙패를 당한 KIA는 13일 한화전 패배까지 더해 4연패에 빠졌다. KIA는 앞선 세 경기에서 4득점에 그치면서 고전했고, 이날은 10번의 공격에서 단 1점도 만들지 못했다. KIA 양현종과 키움 최원태가 숨막히는 투수전을 벌이면서 빠르게 이닝들이 지워졌다. 통산 160승에 1승을 남겨두고 있는 양현종이 1회부터 탈삼진 2개를 더하는 등 삼자범퇴로 좋은 출발을 했다. 2회 2사에서 이지영에게 우전안타를 맞았지만 박주홍의 방망이를 헛돌게 했고, 3회에는 선두타자 김휘집에게 좌측 2루타를 허용했지만 이후 세 타자를 범타로 잡아냈다. 4회를 삼자범퇴로 정리한 양현종은 5회 2사에서 불넷을 내렸지만 김태진의 타구를 직접 잡아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0-0으로 맞선 6회 위기가 찾아왔다. 양현종이 선두타자 이응규를 불넷으로 내보냈고, 이영종의 보내기 번트로 1사 2루가 됐다. 이정후와의 승부에서

연장 승부 키움에 0-2 패배 '해결사 부재' 30안타에 4점 4연패에 빠져... 최하위 추락

연달아 볼 3개가 들어가자 고의 사구를 선택하면서 1사 1-2루. 그러나 양현종은 김혜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임병욱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6회도 실점 없이 마무리했다. 양현종은 이후 7회 2사에서 김휘집에게 좌측간 2루타를 맞았지만 김태진을 삼진으로 잡고 시즌 두 번째 등판을 마무리했다. 104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은 7이닝 3피안타 3볼넷 9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7이닝 완벽투에도 승리는 챙기지 못했다. KIA 타선이 최원태에 묶이면서 8회까지 공략에 실패했다. 1회 류지혁이 불넷으로 걸어나갔지만 2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고종욱의 병살타가 나왔다. 2회는 삼자범퇴로 끝났고, 3회 1사에서 한승택이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에 공을 떨어트리면서 21타석 만에 첫 안타를 2루타로 기록했다. 하지만 박찬호와 류지혁이 각각 2루 땅볼과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5회도 삼자범퇴로 끝났고, 6회 선두타자로 나선 한승택이 다시 한번 최원태를 상대로 우전 안타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박찬호의 희생번트가 나오면서 1사 2루. 하지만 류지혁과 고종욱이 내야 땅볼로 물러나면서 '0'의 행진은 계속됐다. 1사에서 최형우가 좌전안타로 나간 7회도 결과를 만들지 못했고, 8회에는 주자가 나가지 못하면서 최원태는 8이닝(82구) 4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두 선발이 눈부신 호투를 선보였지만 승패는 10회 연장 승부에서 갈렸다. 양현종이 물러난 이후 KIA가 전상현-이준영-정해영으로 8-9회를 무실점으로 버텼지만 타선의 침묵이 계속됐다. 9회 2사에서 소크라테스가 우전 안타로 나갔지만 잔루만 더해졌고, 연장 10회에는 1사에서 김선빈의 불넷 뒤 후속타가 불발됐다. 결국 10회말 김대우가 1사 1루에서 이정후에게 우측 담장 넘어가는 끝내기 투런포를 허용하면서 경기는 0-2 끝내기 패배로 끝났다. KIA는 4연패 기간 30안타로 4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이 중 1점은 상대의 실책으로 인한 점수였다. 김도영과 나성범 두 선수의 부재 속 타선의 집중력까지 떨어지면서 KIA는 4연패와 함께 최하위 자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케인과 투톱으로 뛰니... 손흥민 2경기 연속골

토티넘은 본머스에 2-3 역전패



역시 문제는 안토니오 콘테 전 토티넘 감독의 전술이었다. 오랜만에 골 사냥에 집중한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포의 파괴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손흥민은 15일 영국 런던의 토티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EPL 31라운드 본머스와 홈 경기에서 전반 14분 선제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앞서 30라운드 브라이턴과 경기에서도 득점하며 개인 통산 EPL 100호 골을 넣은 바 있다.

올 시즌 처음으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리그뿐 아니라 전체 공식전 일정표를 놓고 봐도 손흥민이 2경기 연속으로 득점한 것은 처음이다. 손흥민은 전반기 3골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1일 마르세유(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안와골절 부상을 당한 것은 치명적이었다. 완전히 나은 몸 상태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 한국의 16강 진출에 앞장서느라 손흥민에게는 좀처럼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이 펼친 전술에서 손흥민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흥민의 장기는 위험지역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날리는 슈팅이다. 그런데 올 시즌 중반까지 손흥민은 지나치게 수비 가담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외려 콘테 감독이 새로 영입한 왼쪽 윙백 이번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앞에서 공격수에 가까운 동선을 따라 움직이곤 했다. 긍정적 변화는 성적 부진으로 콘테 감독이 경질



손흥민

되고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대행이 실권을 잡고 서야 서서히 이뤄졌다. 점차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던 손흥민은 브라이턴전에서 페리시치의 도움을 받아 골 맛을 봤다. 손흥민의 득점포가 뜨거워지자 스텔리니 감독대행은 본머스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경기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격축구를 해야 한다"면서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브라이턴을 상대로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머스전에서 손흥민은 평소처럼 왼쪽 공격수로 배치됐다. 그러나 콘테 체제에서와는 크게 다른 움직임

을 보였다. 사실상 케인과 투톱처럼 뛰었다. 초반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이 보이던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페리시치가 왼쪽을 돌파하고서 넘긴 킥백을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출렁였다. 그리고는 그간의 부담을 완전히 털어버린 듯 환하게 웃으며 '킬' 세리머니를 펼쳤다. 손흥민과 합이 안 맞는 모습만 보이던 페리시치는 갑자기 2경기 연속으로 손흥민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도우미'로 거듭났다. 결국 손흥민에게 그가 원래 잘하던 업무를 계속 믿고 맡기는 게 정답이었던 셈이다. 손흥민의 전방 복귀로 공격력 저하 문제를 해결한 토티넘은, 이날 수비가 견장을 수 없이 흔들려 결국 2-3으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아깝다! 성유진"

LPGA 롯데 챔피언십 연장 끝 준우승... 교포 그레이스 김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성유진이 초청으로 출전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깜짝 우승' 기회를 놓쳤다. 호주 교포 그레이스 김은 LPGA 투어 데뷔 3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성유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에바비치의 호아칼래이 컨트리클럽(파7·6303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하나를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가 된 성유진은 그레이스 김, 류위(중국)와 동타를 이뤘던 첫 번째 연장전에서 보기에 그치며 버디를 써낸 그레이스 김에게 우승을 내줬다. 지난해 KLPGA 투어 롯데오픈에서 우승해 이번 대회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온 성유진은 2라운드 공동 선두, 3라운드엔 단독 선두를 달려 우승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3라운드까지 공동 2위에 한 타 차로 앞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던 성유진은 4라운드 3번(파4)과 5번 홀(파5)에서 버디를 슈아내며 초반엔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아이언 샷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성유진은 10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에 바짝 붙이며 버디로 반등, 스트롭과 공동 선두가 됐고 류위(중국)가 14번 홀까지 7타를 줄이며 가세해 치열한 우승 경쟁이 이어졌다. 류위가 12언더파로 먼저 경기를 마친 뒤 마지막 조가 17번 홀(파4)까지 치렀을 때 성유진과 그레이스 김이 한 타 차 공동 2위로 연장전 내지



성유진

는 우승 기회가 있었는데, 나란히 18번 홀(파5) 버디로 류위와 연장전이 성사됐다. 18번 홀에서 이어진 1차 연장전에서 세 선수가 모두 그린에 공을 올리지 못해 주변 러프에서 세 번째 샷을 이어갔고, 세 번째 샷을 가장 가까운 곳에 보낸 그레이스 김이 유일한 버디로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성유진은 세 번째 샷이 그린을 넘겨 반대편 러프에 떨어지면서 결국 파를 지키지 못했다. 그레이스 김은 이날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여 연장전에 합류, 버디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홈에서 3골 잔치 '용광로 축구' 시동

충북청주에 3-0 승리

전남드래곤즈가 시원한 골잔치와 함께 시즌 첫 홈 승리를 신고했다. 전남은 지난 15일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3 7라운드 충북청주FC와의 홈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안방에서 1무 3패로 부진했던 전남의 시즌 홈 첫 승리였다. 지난 12일 FA컵 3라운드 충남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뒀던 전남이 상승세를 이어 시원한 공세를 벌였다.

전반 41분 고태원이 마수걸이 골을 장식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발디베아가 오른쪽에서 띄운 공을 고태원이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장식했다. 두 번째 골이 나오는 데는 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유혜이의 패스를 받은 노건우가 페널티 박스에 진입해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 왼쪽을 갈랐다. 그리고 후반 30분 하남이 '췌기골'을 장식했다. 프리킥 상황에서 여승원이 왼쪽에서 길게 공을 올렸고 하남이 문전으로 쇄도해 슈팅을 날렸다. 공

이 키플러 류원우에 막혔지만 하남이 흐른 공을 다시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을 만들어냈다. 지난 성남과의 6라운드 경기에 이어 기록된 하남의 시즌 2호골이자 FA컵 포함 세 경기 연속골이다. 전남은 이후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지키면서 3-0 대승을 완성했다. 시즌 초반 골가뭇에 울었던 전남은 4월 3경기에서 8골을 터뜨리면서 '용광로 축구'에 시동을 걸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